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08.08 (통권360호)



경제이슈

미국 더블딥 우려 재부상

KOSPI지수 급락

경영노트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

저널 브리프

사업하기 좋은 세계의 도시들

洗心錄

더불어 산다는 것

□ 미국 더블딥 우려 재부상

- 미국 주요경제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재부상
 -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 미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1.3%를 기록하고 1/4분기 경제성장률도 1.9%에서 0.4%로 하향조정. 또한 7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도 2년래 최저치인 50.9를 기록
 - 미국 증시 폭락 : 7월 말부터 미국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확산되어 8월 4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4.3%, 5.1% 폭락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 미국 더블딥 우려에 따라 세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며 8월 이후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 대표지수인 CRB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
- 미국의 주요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따른 긴축재정 여파가 겹치며 미국 경제성장세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KOSPI지수 급락

- KOSPI지수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으로 2,000선이 붕괴되며 1,944p 기록
 - 추이 : KOSPI지수는 8월 1일 2,172p 이후 4일 동안 229p 급락하여 8월 5일 기준 1,944p 기록
 - 미국 경기둔화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협상이 타결되어 디폴트 우려가 감소하였지만,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우려 및 재정긴축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더블딥 가능성 제기되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 :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의 CDS가 8월 3일 기준 각각 364bp, 417bp로 유로 출범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될 우려
- KOSPI지수는 주요국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당분간 조정장세가 지속될 전망

□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¹⁾

- 최근 각종 소통의 수단이 증가하면서 조직의 협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올바른 협업 문화를 이끄는 리더십의 사례는 많지 않음
 - 상명하달의 조직에 협업 문화를 수립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협업 조직 역시 결정 및 실행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올바른 협업 조직의 리더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다양성의 통합 능력은 물론 협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함
 - 특히 리더의 네트워크는 주위에 지인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아이디어,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함
 - 또한 협업 문화가 지나친 회의 및 토론 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업의 시작과 종단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카리스마 역시 중요함
- 리더의 개인적 능력, 조직 문화 조성 및 통솔 능력 등 협업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이 가능하다면 리더로서의 협업 능력이 충분하다 할 수 있음

< 리더의 협업 능력 체크리스트 >

	내 용
글로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이 없는 컨퍼런스에도 참석하는가? • 온라인을 포함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조직 안팎의 사람들과 트렌드나 아이디어 등을 주고받는가? • 직무와 무관한 조직 외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모임을 갖는가? • 해외의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다양성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조직 내에 얼마나 다양한 국적, 연령, 성별의 조직원이 있는가? • 특히 신흥국을 포함하여 해외에 체류하며 타국의 문화 경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 지인 가운데 자녀 외에 20대 이하의 사람이 있는가?
협업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은 개인 목표 이상으로 조직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가? • 조직의 결정이 조직 내 정치 관계를 떠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조직 내의 권력 투쟁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히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 조직원의 평가가 성과 목표와 학습 목표를 모두 지향하고 있는가?
의사 결정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6개월 내에 협업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적이 있는가? • 새로운 기회 발생 시 신속하게 팀을 조직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가? • 조직 내부에 논의의 종결이나 의사 결정 방법을 아는 인재가 있는가? • 조직이 의사 결정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을 즐기지는 않는가?

1) 본 자료는 'Are You a Collaborative Leader?(Harvard Business Review, 2011. 6)'를 요약 정리함

□ 사업하기 좋은 세계의 도시들²⁾

■ 최근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도시들을 발표하였음

① 보고타(Bogota, 콜롬비아)

-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기업가가 선호하는 중남미 국가 도시 중 2위를 차지하였음
- 이는 회사 설립이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편하고, 표준 스페인어를 구사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

② 라고스(Lagos, 나이지리아)

-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의 석유 수출을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라고스 항구가 위치하는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중심지임
- 또한 라고스市 공무원들은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공약하였음

④ 도하(Doha, 카타르)

-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주요 석유·천연가스 회사가 결집한 곳으로, 국왕이 직접 나서 부동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음
- 또한 도하의 교육도시에는 노스웨스턴 대학, 조지타운 대학 등의 위성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차세대 근로자들을 육성하고 있음

⑤ 충칭(Chongqing, 중국)

- 인구 3,000만의 중국 남서부 도시인 충칭은 중국 전역과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의 삼협댐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 인프라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충칭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과 화학, 제약 분야를 이끌고 있음

⑥ 스톡홀름(Stockholm, 스웨덴)

- ‘무선밸리(Wireless Valley)’라고 불리는 스톡홀름의 과학 클러스터 단지 Kista는 에릭슨, 인텔, 모토로라, 시만텍, 오라클 등 700여 개 하이테크 기업들의 본거지임
- IT기술 전성시대의 도래로 스톡홀름이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

⑦ 바르샤바(Warsaw, 폴란드)

-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는 170만 거주민 중 30만 명이 대학생일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음
- 또한 정부 지원 기업 대출, EU에서 가장 낮은 부동산 가격 및 인건비,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기업들에게 어필함

■ 이들 지역은 고급인력과 탄탄한 인프라, 잠재 고객을 고루 갖추고 있어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2) 「The Best New Cities for Business」 (포춘코리아, 2011.8월호) 참조

□ 더불어 산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수소 분자 두 개는 산소 분자 하나와 합해져야만 물이라는 물질이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 가까이 있다가 서로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루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까이 있는 분자 형태의 수소와 산소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진다. 나무가 밤새도록 내뿜는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내가 뱉어 내는 탄소는 다시 나무가 마시게 된다. 사람과 사람도 함께 살지만, 사람과 자연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이우성은 《정말 소중한 것은 한 뼘 곁에 있다》라는 저서에서 “나는 결국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삼라만상이 어느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변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 안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일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웃 사촌이다. 혈연을 강조하는 우리네 사회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 마음을 비운 만큼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이웃들과 즐겁게 지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엄청난 이익을 준다는 것을 느껴보자.

배우기를 그만둘 때 성장도 멈춘다.

When you stop learning, you stop growing.

- 노만 빈센트 필(1898~1993) : 미국의 목사, 작가